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주연, 김계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to Social Health among Nursing Students

Ju-Yen Kim, Kye-Ha Kim*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G 시와 J 도에 소재한 2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13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 t-검정,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건강 81.13 ± 10.44 점, 공감 69.75 ± 10.53 점, 통제소재 9.07 ± 2.65 점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의 차이는 입학 동기 ($F=11.58$, $p<.001$), 전공 만족 ($F=7.31$, $p<.001$), 임상실습 만족 ($F=3.66$,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건강은 통제소재 ($r=.3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통제소재 ($\beta=.29$, $p<.001$), 입학 동기 ($\beta=.28$, $p<.001$), 전공 만족 ($\beta=.22$, $p=.004$) 이었고, 이들 독립변수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27.0%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목표를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전공과 관련된 만족을 높여 줌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건강을 함양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social health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6 students from two nursing colleges in G city and J province i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scores: social health 81.13 ± 10.44 , empathy 69.75 ± 10.53 , and locus of control 9.07 ± 2.65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health according to the admission motivation ($F=11.58$, $p<.001$), satisfaction in the major ($F=7.31$, $p<.001$),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3.66$, $p=.014$) and social healt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ocus of control ($r=.38$, $p<.001$). Locus of control ($\beta=.29$, $p<.001$), motivation for admission ($\beta=.28$, $p<.001$), and major satisfaction ($\beta=.22$, $p=.004$) were confirmed as factors affecting social health and accounted for 27.0% of the vari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soci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by regularly evoking goals related to social activities and investigating major-related satisfac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 Social Health, Empathy, Locus of Control, Clinical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성의 수준을 신체-정신적 영역이라는 질병의 양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지

*Corresponding Author : Kye-Ha Kim(Chosun Univ.)

email: kyeha@chosun.ac.kr

Received July 21,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13,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않고,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해까지 확장하여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요소를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심리·사회성 발달에 대해 연구한 Erikson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성인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이 시기는 성인기의 도입단계로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지적·사회적 인식 능력이 확대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사회인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이라는 학제적 과업 수행을 위해 임상실습지에서 간호업무 관찰자 및 직·간접 수행자, 기타 의료인의 조력자 등의 역할로 다양한 대상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 전문직과 관련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3].

사회적 건강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의 적응력 및 타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능력'으로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화된 개념적 요소보다 다차원적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4,5]. 이렇듯 사회적 건강의 함양은 매우 중요함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6,7]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타인의 관점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현상으로[8],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공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간호대학생의 경우 미래의 간호사로서 환자 및 타 직종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9]. 선행연구[10]에서도 공감 능력은 사회적 건강과 관련되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건강과 공감은 서로에게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원인에 따라 내·외 통제소재로 구분이 되는데 내적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 결과가 노력, 능력과 관련되어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성향을 말하고, 외적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행운, 기회, 타인의 힘으로 보는 성

향을 나타낸다[11]. 이와 같은 개념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타난 신념적 태도라 말할 수 있다[12,13].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지에서 대학시기의 자유스러운 사고와 다소 경직되고 획일적인 병원의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신념의 태도를 어떠한 부분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달라져 사회적 건강에 대한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사회적 적응과정을 통해 더 민감하고 포괄적으로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존적이지 않고 타인과의 정서적 조율을 통하여 자신의 통제소재 위치가 내적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건강과 본인의 삶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통제소재가 사회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통제소재를 조사하고,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통제소재의 정도를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 정도를 알아본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통제소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통제소재의 정도를 알아보고,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 광역시와 J 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36명의 3, 4학년 간호학과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에는 1)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포함하여,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자,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포함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 $\alpha = .05$, $power = .80$, 중간(*medium*) 효과크기인 $.15$ 를 기준으로 하고, 독립변수가 5개일 때를 근거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가 92명이었으므로 대상자 표본 수는 충분히 만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15]이 개발한, 건전한 사회적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율성, 근면성, 사교성, 안정성, 책임성, 지도성의 6개의 하위 영역별 4개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일부 문항은 역 환산으로 처리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건강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 α 는 $.89$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 이었다.

2.3.2 공감

공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avis[8]가 개발하고, Kang 등[16]이 번안한 한글판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적 요소 14문항, 정서적 요소 14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부정의 문항은 역 환산으로 처리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는 0-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16]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 이었다.

2.3.3 통제소재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해 Rotter[11]가 개발하고 Cha 등[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반응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개의 허구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통제에 1점, 외적 통제에 0점을 주는 2점 척도이며, 허구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 가능한 점수는 0-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내적 통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7]에서의 신뢰도는 대학생 집단에서 $.46$ 이었고, 기혼여성에서 $.73$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59$ 였다.

2.4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후인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에 앞서, G 광역시와 J 도에 소재한 2개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될 것과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렸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태 일지라도 언제든지 거부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설문은 코로나 감염증-19의 확산과 대응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대면을 통한 종이 설문지와 비대면 온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유선상 사전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템플릿 URL을 모바일로 전송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회수율이 낮아질 것을 대비하여 실제 계산된 표본 수보다 더 많은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3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응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건강, 공감 및 통제소재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 공감 및 통제소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3.5세였고, 여학생이 84.6%(115명)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59.6%(81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학년으로는 4학년 58.8%(80명), 3학년 41.2%(56명)로 나타났다. 지난 학기 전공의 평균 성적은 B 학점인 대상자가 60.3%(82명)로 가장 많았고, 정규 수업 외 학내 활동은 89.7%(122명)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입학동기는 77.9%(106명)가 '본인 스스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느 장소에서 간호 술기를 더 많이 익힐 수 있었냐? 는 질문에 62.5%(85명)의 학생이 교내실습이라 답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56.6%(77명),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57.4%(78명)의 대상자가 모두 '약간 만족한다'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은 임상실습 중 힘들었던 관계(35.8%)와 도움이 되었던 관계(37.4%)에 대해서 모두 일반간호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Table 2).

3.2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 공감, 통제소재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은 120점 만점에 평균 81.13±10.44점이었고, 공감은 112점 만점에 평균 69.75±10.53점으로 나타났다. 통제소재는 15점 만점에 평균 9.07±2.65로 조사되었다(Table 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은 간호학과 입학 동기(F=11.58, p<.001), 전공 만족(F=7.31, p<.001), 임상실습 만족(F=3.66, p=.014)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입학 동기에서는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사회적 건강 정도가 높았다. 전공 만족에서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 정도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은 사후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Level of social health, empathy, and locus of control

Variables	M±SD	Min.	Max.
Social health	81.13±10.44	57	112
Empathy	69.75±10.53	45	95
Locus of control	9.07±2.65	1	15

Min: Minimum, Max: Maximun

3.4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 공감, 통제소재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통제소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건강은 통제소재(r=.3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개(입학동기, 전공 만족, 임상실습 만족)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수 공감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99로 기준인 0.1 이상이었으며, VIF값도 1.01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2.06이었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소재(β =.29, p<.001), 입학동기(본인 스스로)(β =.28, p<.001), 전공 만족(매우 만족)(β =.22, p=.004)인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27%였다(Table 4).

Table 2. Soci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Variables	Categories	Social Health		
		n(%)	M±SD	t or F(p) Scheffé
Age (yr)	20-22	50(36.8)	81.66 ± 11.01	0.61 (.544)
	23-25	33(24.2)	82.27 ± 10.52	
	≥26	53(39.0)	79.92 ± 9.90	
Gender	Male	21(15.4)	83.10 ± 12.02	2.42 (.122)
	Female	115(84.6)	80.77 ± 10.14	
Religion	Catholic	14(10.3)	3.40 ± 0.28	0.28 (.842)
	Christian	32(23.5)	3.41 ± 0.47	
	Buddhism	9(6.6)	3.48 ± 0.52	
	None	81(59.6)	3.36 ± 0.44	
Classes	Junior	56(41.2)	3.31 ± 0.45	2.25 (.136)
	Senior	80(58.8)	3.43 ± 0.42	
Grade	A	34(25.0)	3.47 ± 0.46	1.09 (.339)
	B	82(60.3)	3.36 ± 0.45	
	C, D	20(14.7)	3.32 ± 0.43	
Club activity	No have	122(89.7)	3.38 ± 0.44	-0.25 (.806)
	Have	14(10.3)	3.41 ± 0.43	
Admission motivation	Oneself ^(a)	106(77.9)	3.46 ± 0.41	11.58 (<.001)**
	No oneself ^(b)	20(14.7)	3.17 ± 0.37	
	Others ^(c)	10(7.4)	2.91 ± 0.37	
Nursing skills	School Practice	85(62.5)	3.35 ± 0.44	1.18 (.309)
	Clinical practice	48(35.3)	3.41 ± 0.43	
	Others	3(2.2)	3.72 ± 0.51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a)	36(26.5)	3.61 ± 0.47	7.31 (<.001)**
	A little satisfied ^(b)	77(56.7)	3.32 ± 0.36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 little unsatisfied ^(c)	20(14.7)	3.26 ± 0.46	3.66 (.014)*	
	Very unsatisfied ^(d)	3(2.1)	2.75 ± 0.30		
	Very satisfied	28(20.6)	3.59 ± 0.40		
	A little satisfied	78(57.4)	3.36 ± 0.43		
Difficult relation	A little unsatisfied	27(19.8)	3.27 ± 0.44		
	Very unsatisfied	3(2.2)	3.00 ± 1.67		
	Head nurses	41(30.1)	3.32 ± 0.54		-1.20 (.233)
	Staff nurse	73(53.7)	3.34 ± 0.40		-1.20 (.233)
	Patients	25(18.4)	3.37 ± 0.38		-0.15 (.878)
	Family members	18(13.2)	3.46 ± 0.37		0.84 (.403)
Support relation	Peer	29(21.3)	3.42 ± 0.51	0.58 (.561)	
	Instructors	18(13.2)	3.46 ± 0.45	0.84 (.403)	
	Head nurses	26(19.1)	3.39 ± 0.42	0.12 (.908)	
	Staff nurse	74(54.4)	3.37 ± 0.47	-0.26 (.796)	
	Patients	15(11)	3.35 ± 0.39	-0.26 (.795)	
	Family members	5(3.7)	3.12 ± 0.45	-1.39 (.168)	
Peer	Peer	51(37.5)	3.37 ± 0.38	-0.17 (.869)	
	Instructors	27(19.9)	3.50 ± 0.42	1.54 (.126)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social health, empathy, and locus of control

Variables	Social health	Empathy	Locus of control
	<i>r</i> (<i>p</i>)		
Social health	1		
Empathy	-.00(.962)	1	
Locus of control	.38(<.001)*	.07(.405)	1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ocial health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	t(<i>p</i>)	F(<i>p</i>)	adj. <i>R</i> ²
	B	<i>β</i>			
Locus of control	0.35	0.29	3.80 (<.001)		
Admission motivation (Oneself)	0.29	0.28	3.73(<.001)	17.24(<.001)	0.27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0.22	0.22	2.94(.004)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건강의 정도는 120점 만점 중 평균 81.13점(평균점 3.38)으로 간호대학생들은 그들의 사회적 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구는 아니지만, 선행연구[18]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평균점이 3.20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사회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선행연구[18]에서는 1, 2학년이 포함된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저학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 사회적 경험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부담감 등도 함께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실습이라는 새로운 학습상황을 겪으며 저학년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성숙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공감의 정도는 112점 만점 중 평균 69.75점(평균점 2.49)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과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선행연구[19]에서의 2.51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차이는 있으나 공감의 정도는 모두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타고난 기질로 분류되는 감수성과 달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후천적인 능력으로 다양한 경험에서 향상될 수 있으며[20], 이러한 경험에 의한 공감적 행동은 사회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21]. 실제로 연령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연구한 Hwang[22]의 보고에서 생활 연령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은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고하였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심리적 거리감과 소통의 장애로 인해 공감이 발현되기 어려운 공간이다[23].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 증진을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이고 사실 중심적인 체험적 학습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통제소재는 15점 만점 중 평균 9.07점(평균점 2.65)으로 보통 이상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역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24]의 7.05보다 높은 결과로 본 연구대상자들이 좀 더 내적 통제 성향을 가지는 것이다. 추가조사에서도 본 연구대상자들은 전체 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적 통제집단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된다. 내적 통제자는 혐오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입수에 효율적이며 모호한 상황에서도 법칙을 빨리 발견한다[25].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건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태도, 노력의 조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교육시키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통제소재 위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공감보다는 통제소재 위치가 사회적 건강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는 신념인 통제소재 위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제소재 위치, 본인 스스로 입학한 경우,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통제소재 위치가 사회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는데, 간호대학생의 통제소재 위치와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찾는 것이 어려워 심층적인 해석은 어렵지만, 위 결과에서 사회적 건강이 통제소재 위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 내적 통제신념을 가진 대상자가 친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한다고 보고된

선행연구[26]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내적 요인의 신념을 가진 통제 군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신뢰 관계를 유지해 사회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과 관계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 노력이나 능력, 의지에 따라 환경과 상황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교육시키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학한 경우는 사회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27]에서 학과 지원동기가 자발적이었을 때 대학 생활의 적응력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은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28], 이러한 기폭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와 개인의 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건강의 함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라는 직업군은 사명 의식은 높으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율이 높은 직군에 속한다[29].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은 자발적인 입학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안락하지 않은 직업임을 알고도 스스로 원하여 입학한 대상자들은 타 전공 대학생들보다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능력과 의지가 높아 사회적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 과정에서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훗날 취업상황에서도 확고히 유지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할 경우 임상 수행 능력 향상이나 임상실습 만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0,3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정규적인 전공 관련 만족을 조사하여 만족이 낮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들에게 주기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적 건강과 전공에 대한 만족이 함께 수반되는지 확인한다면 간호 학생들의 사회적 건강의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

들의 사회적 건강과 통제소재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소재, 본인 스스로 입학한 경우,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확고한 신념체계를 갖추고 개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하여 전공에 만족한 상태에서 임상실습에 임하였을 때, 즉, 동기적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 상황을 내적 신념체계에 극복하여 사회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학과 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소재 측정 도구 신뢰도는 .59였다. 문헌고찰 결과, 통제소재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 도구가 본 도구였기에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선행연구[21]에서는 신뢰도 검사 결과 .46으로 본 연구의 수치보다 낮아 사용을 하게 되었다. 또한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고학년인 3, 4학년일지라도 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부족하여 완전한 발달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의 체계가 아직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도구의 신뢰도는 낮으나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값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추후에는 신뢰도가 더 높은 통제소재 위치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H. Erickson, *Childhood &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Inc Inc, 1963.
- [2] R. Y. Jeon, E. J. Seo, J. J. Yoon, S. J. Jeong,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competency and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 235-258, 2020.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20.20.235>
- [3] J. H. Yoo, H. J.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553-561, 2019.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9.20.3.553>
- [4] R. J. Donatelle, L. G. Davis, C. F. Hoover, A. Harding. Access to health. Allyn and Bacon Boston, MA. 1994.
- [5] J. I. Park, G. S. Lee, H. S. Hong, "Social health",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142(2000), 41-47, 2000. Available From : <http://www.kiha21.or.kr>
- [6] H. J. Kang, Y. J. Ji, "The convergent study of mental health on nursing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9(1), 739-748, 2019. Available From :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74>
- [7] E. K. Byun, H. J. Yang, "Effects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85-93, 2020.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85>
- [8] M. H. Davis,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on emotional reactions and help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51(2), 167-184, 1983.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83.tb00860.x>
- [9] J. O. Jeong, S. Kim,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44-356,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3.344>
- [10]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86-295, 2020.
DOI : <https://doi.org/10.5762/KAIS.2020.21.6.286>
- [11] J. B. Rotter,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y*, 80(1), 1, 1966.
DOI: <https://doi.org/10.1037/h0092976>
- [12] A. A. Mohamed, A. M. Mohammed,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at Damanhour university", *IOSR Journal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7(5), 1-13, 2018. Available From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7636103_Relation_between_Locus_of_Control_and_Academic_Achievement_of_Nursing_Students_at_Damanhour_University
- [13] H. J. Choi, "On the type of peer inter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ner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of inf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448-45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6.448>
- [14] J. K. Jung, M. J. Ka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friend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485-498, 2019.
DOI: <https://doi.org/10.6115/fer.2019.036>
- [15] D. H. Kim, *Analytic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ealthy sociality scale*,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Korea, 1992.
- [16] I. Kang, S. Kee, S. E. Kim, J. H. Hwang, J. E. So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5), 352-358, 2009.
- [17] J. H. Cha, C. J. Kong, C. S. Kim, "Report on construction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Research Notes*, 2(19), 263-271, 1973.
- [18] M. S. Yoon, S. Y. Yim, "A study of convergence social voluntary service activity and sense of profession values, self-esteem, socia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562-570, 2018.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8.18.11.562>
- [19] E. Y. Kim, "The effects of empathy and critical thinking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9(11), 589-600, 2019.
DOI: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11.053>
- [20] S. R. An, Y. G. No,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45(1), 30-36, 2020.
DOI: <https://dx.doi.org/10.21032/ihis.2020.45.1.30>
- [21] J. G. Hong, "A study on the role of empathic understanding for happiness", *Happiness Society*, 8(2), 15-30, 2019.
- [22] S. Y. Hwang, M. S. Yoon, "Develop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3(2), 193-210, 2019.
DOI: <https://dx.doi.org/10.17286/KJEP.2019.33.2.04>
- [23] G. J. Lee,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online remote learning of Sino-Korean poetry as a major subject-Focused on the 1st semester class examples of 2020", *Han-Character and Classical written language Education*, 8, 51-72, 2020. Available From :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403343>
- [24] Y. S. Choi, E. J. Lee, D. H. Lee,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8(1), 540-550,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1.540>
- [25] J. S. Lee, "Individual difference in indirect trauma by social disastrous accidents: Interactive effect of l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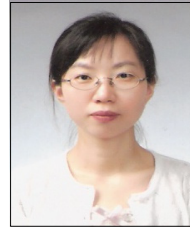
of control and safety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6), 3179-3194, 2019.

DOI: <http://dx.doi.org/10.37727/jkdas.2019.21.6.3179>

- [26] D. T. Tempelaar, A. Niculescu, B. Rienties, "How achievement emotions impact students' decisions for online learning, and what precedes those emotion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5(3), 161-169, 2012.
DOI: <https://doi.org/10.1016/j.iheduc.2011.10.003>
- [27] G. Y. Sung, "Influences of gender equ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6), 2443-2456, 2020.
DOI: <http://dx.doi.org/10.37727/jkdas.2020.22.6.2443>
- [28] T. H. Yoon, H. R. Lee, T. Y. Moon, J. M. Kwon, H. S. Ham, "Influence of college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on the dropout and future succession by the motivation of university admiss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40-340, 2019.
- [29] S. H. Jeong, *A ground theory on occurrence and persistence of tae-um among nurses on nursing unit environment*,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18. Available From : <https://hdl.handle.net/10371/140501>
- [30] K. H. Lee,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297-306,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297>
- [31] E. J. Lee, H. J. Kim, E. B. Park, J. H. Park, M. J. Jeong, J. 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 263-278,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263>

김 계 하(Kye-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건강증진

김 주 연(Ju-Yen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성인간호, 임상실습, 노인간호, 취약계층